

2020 국학진흥협의체 공동사업

# 「민간 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1. 2.(월) 9:30~12:00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2020 국학진흥협의체 공동사업

# 「민간 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11. 2.(월) 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09:30~10:00	등록 및 개회	사회 : 오용원(한국국학진흥원)
		개회사, 환영사, 축사
10:00~10:20	특별전 개막	2020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특별전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 개막식 및 전시해설
10:20~11:00	주제발표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고석규(목포대학교)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박원재(울곡연구원)
11:00~12:00	종합토론	좌장: 이영호(인하대학교)
		오석민(지역문화연구소), 정금식(서울대학교) 임학성(한국고문서학회), 이 욱(순천대학교)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

# 목 차

⊕ 민간 기록문화 보존와 활용방안 / 3

고석규(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47

박원재(울곡연구원 원장)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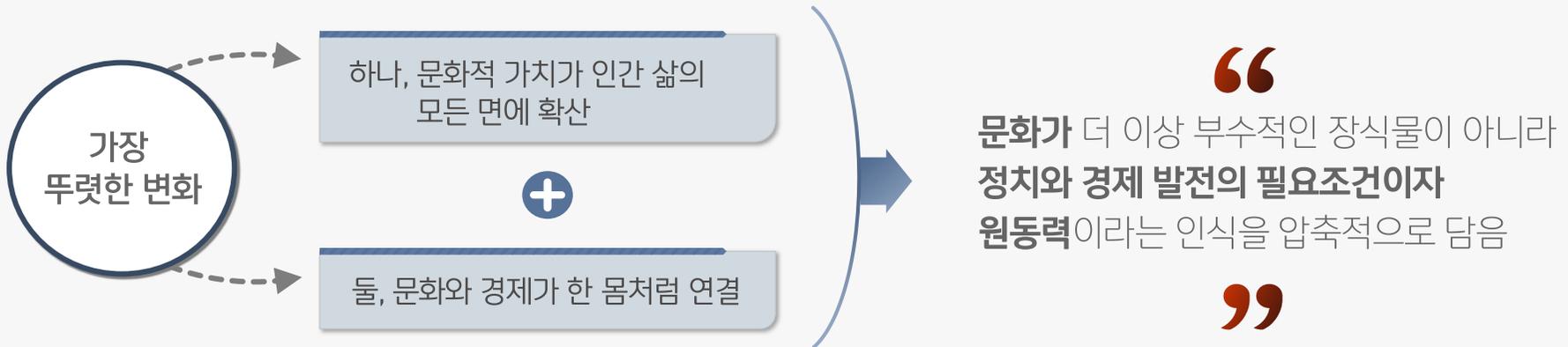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고석규**

## PRESENTATION CONTENTS

1. 문화가 힘이다
2. 국학진흥협의체 기관 현황
3. 국학진흥협의체 기관의 진흥
4. 한류는 어떻게 성장했나?  
① 정책적 지원 ② 소재의 발굴
5. 또 다른 문화의 보고 - 민간 기록문화
6.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 방안
7.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정책  
① 모색 ② 지향점 ③ 성공조건 ④ 성과

# 문화정책 = 경제정책

##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부른다.



즉,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화발전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

### 지금 문화의 시대가 왔고 문화산업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 고유한 문화가 경쟁력

# 문화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 문화는 경제발전의 원동력

### 문화산업은?

국가나 특정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통해  
발현되는 지식산업



“  
이제 세계는  
누가 얼마나 **고유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품화** 하느냐에  
국가경쟁력이 달려 있음  
”

## 문화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의 최후 승부처 (Peter Drucker)

# ① 한국국학진흥원

**슬로건**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진흥

**설립목적**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과 국학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설립

- 주요사업**
1. 국학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정리 보존사업
  2.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
  3. 국학자료 및 학술 관련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보급을 위한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5. 전통인문정신 연수사업
  6. 학술 및 연수 관련 수탁사업
  7. 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9. 그 밖에 국학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Vision**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진흥  
- 국학자료의 보존 및 연구·보급·확산의 중심기관

**Mission** 세계화, 현대화, 실용화, 정보화, 대중화

**주요성과** 국학자료 50만점 달성(18. 6), 유교문화박물관, 한문교육원, 인문정신연수원, 유교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의 편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 등재



### ① 한국국학진흥원 - 원장 인사말



한국국학진흥원은 1995년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진흥'이라는 비전 아래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과 국학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국학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국학의 세계화, 현대화, 실용화, 정보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실로 2015년에는 '유교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고, 2016년과 2018년에는 '한국의 편액'과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국학자료수집 50만점을 돌파함으로써 국내 최다 국학자료 소장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료는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내 나라와 고장을 지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보존해 온 선현의 지혜가 담겨 있는 보고寶庫이자, 세계사적으로도 유의미한 문화 자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자료에 담긴 정신문화의 참된 가치를 되살려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진통을 완화시키고, 상호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국학진흥원이 앞으로도 국학의 연구와 진흥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02. 국학진흥협의체 기관현황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 ① 한국국학진흥원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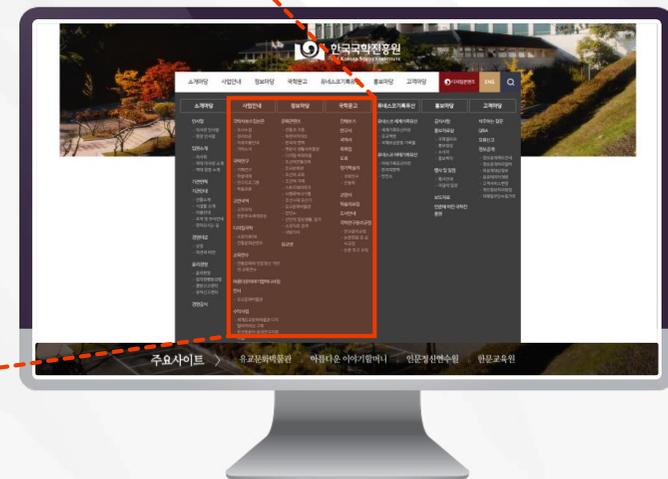
## 02. 국학진흥협의체 기관현황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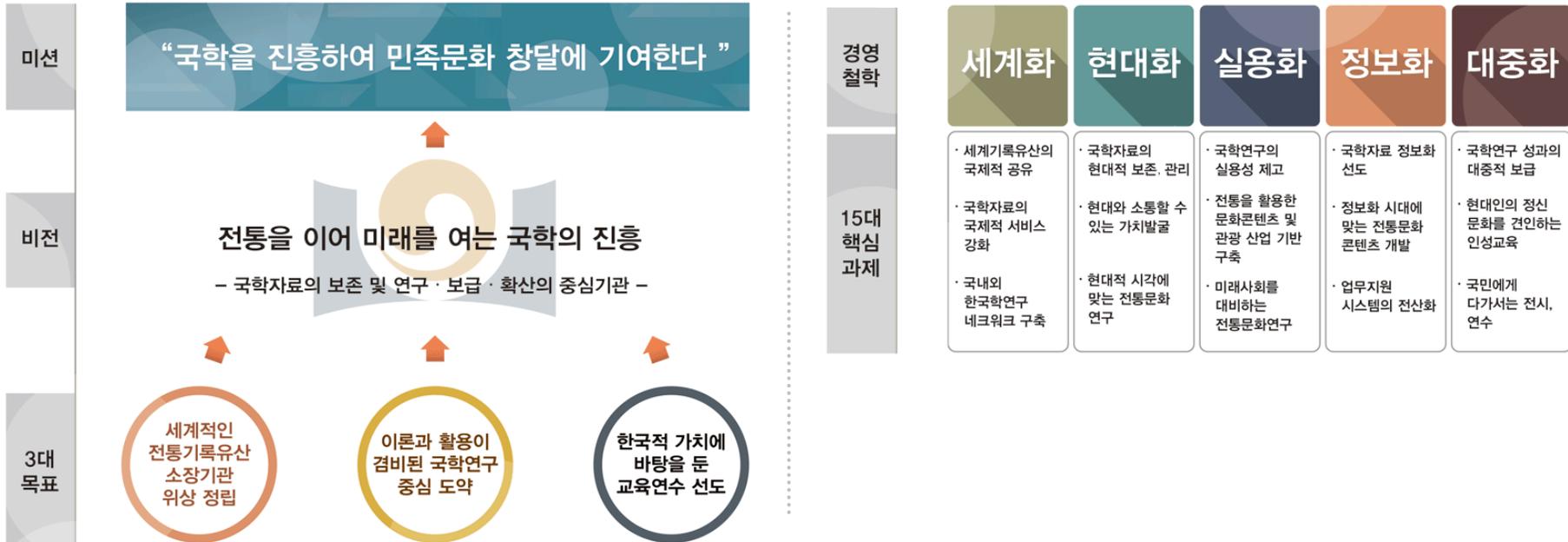
### ① 한국국학진흥원 - 주요사업

사업안내	정보마당	국학문고
<b>국학자료수집보존</b> / 조사수집 / 정리보존 / 자료이용안내 / 기탁소식	<b>문화콘텐츠</b> / 전통과 기록 / 목판아카이브 / 한국의 편액 / 옛문서 생활사박물관 / 디지털 하회마을 / 조선의전통건축 / 유교문화관 / 조선의 교육 / 조선의 가례 / 스토리테마파크 / 사행록역사기행 / 조선시대 유산기 / 유교문화박물관 / 만인소 /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 소장자료 검색 / 내방가사	<b>전체보기</b> <b>연구서</b> <b>국역서</b> <b>목록집</b> <b>도록</b> <b>정기학술지</b> / 국학연구 / 안동학 <b>교양서</b> <b>학술자료집</b> <b>도서안내</b> <b>국학연구유리규정</b> / 연구유리규정 / 논문편집 및 심사규정 / 논문 투고 규정
<b>국학연구</b> / 기획연구 / 학술대회 / 연구프로그램 / 학술교류	<b>유교넷</b>	
<b>고전국역</b> / 고전국역 / 한문후속세대양성		
<b>디지털국학</b> / 소장자료DB / 전통문화콘텐츠		

사업안내
<b>교육연수</b> / 전통문화와 인문정신 기반의 교육연수
<b>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사업</b>
<b>전시</b> / 유교문화박물관
<b>수탁사업</b> /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b>기록유산 등재가치 발굴</b>



## ① 한국국학진흥원 - 미션과 비전



## ②충남역사문화연구원

**슬로건** 일상 속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삶

**설립목적**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보존·홍보하여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 주요사업**
1.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2.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3.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4. 충청남도 관련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전시를 통한 자긍심 함양
  5.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문화유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충청남도가 계획한 역사 문화 관련 사업 추진
  7. 충남의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연구 의뢰사업
  8. 충청남도지 편찬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Vision** 충남 역사문화의 대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 Mission**
- 도정발전에 부응하는 정책연구 중심
  -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역사문화의 대중화
  - 역사연구 역량을 결집하는 네트워크 구축

**주요성과** 역사박물관 개관, 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유산 관리 등



## ②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원장 인사말

# 더 행복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대 원장 박병희입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4년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조사·발굴·연구하여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보존·홍보를 통해 후세에 계승·발전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구원은 충청남도지 편찬, 백제문화사대계 발간, 공주 수촌리유적 발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유 등 충남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중심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문화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제고되고 있는 요즘,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백제문화, 내포문화, 기호유학이 꽃피운 곳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권 개발과 역사문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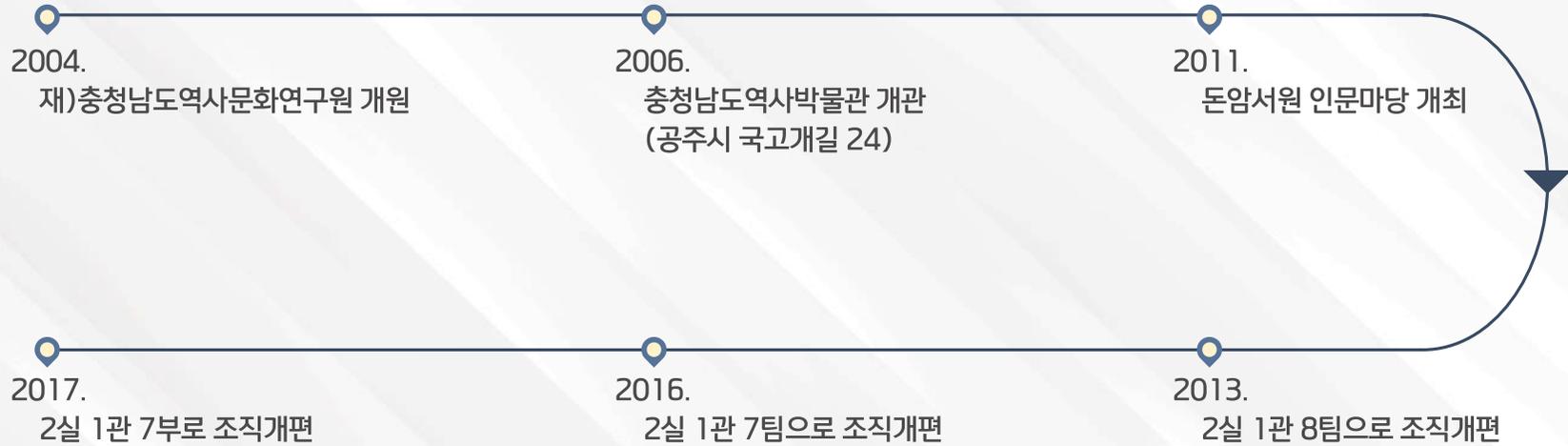
아울러 충남 역사문화의 고유한 브랜드 개발, 새로운 연구 분야의 발굴과 육성 등 미래 가치를 개발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이 넘쳐나는 건강한 생활의 터전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연구원, 출근하고 싶은 연구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 ②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혁



## ②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설립목적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배경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의 역사 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발굴·조사·연구로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보존·홍보를 통하여 충남의 역사 문화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충남의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충남의 역사문화 체계적 발굴·연구, 문화 위상 제고



찬란한 백제역사 재조명, 도민의 자긍심 고취



문화재 발굴·보존·전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 02. 국학진흥협의체 기관현황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 ②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역사 문화 연구의 심크랭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을 강화시켜겠습니다



충남도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연구자료 및 자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역사연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유산관리



특성화사업



충남역사 박물관운영

충남역사연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유산관리    특성화사업    충남역사박물관

학술연구 학술지발간 도·시·군·읍면지 지역교재 역사문화총서	문화재조사정보 문화재조사의회	문화유산 관리정책연구 원형기록화조사 및 DB구축 문화재 종합정보기획수립 현상변경허용기준마련 모니터링 개발연구	백제문화권 충청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	박물관소개 소장품전시 소장품현황 교육문화행사
--	--------------------	---	---------------------------	-----------------------------------

#### 충남역사문화 아카이브

문서로 기록된 아름다운 충남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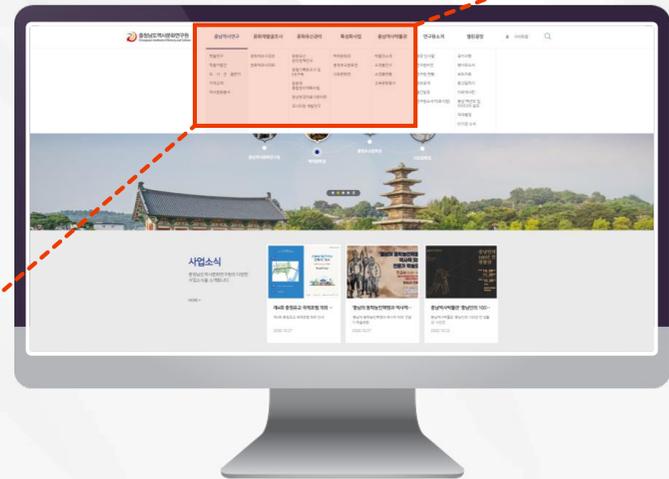
원문객체 자료



도면자료



고전적자료



## ②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비전과 전략

“충남 역사문화의 대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 |   |   |   |
|---|---|---|
| <p><b>도 정책사업과 연계한 과제개발 및 수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 정책과 원 정체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의무제 도입(1인 1과제)</li> <li>• 국가 정책사업 및 국가 지원대상 사업 발굴과 참여</li> <li>• 도 역사문화 시설을 연구원 운영 확대</li> </ul> | <p><b>도민과 함께 역사 대중화 모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학생 역사교재 및 대중서 발간</li> <li>•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li> <li>• 흥미있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li> </ul> | <p><b>분야별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분야 (향토사가+문화원 등)</li> <li>• 백제 분야 (학회+대학+연구기관 등)</li> <li>• 유교 분야 (문중+향교+영남+해외 등)</li> </ul> |
| <p><b>충남만의 특성화된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전통 역사문화 이미지 창출</li> <li>• 충남 주요 문화권별 연구</li> <li>• 충남만의 특성화된 역사 연구</li> </ul>                                    | <p><b>충남만의 특성화된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전통 역사문화 이미지 창출</li> <li>• 충남 주요 문화권별 연구</li> <li>• 충남만의 특성화된 역사 연구</li> </ul>  | <p><b>시·군·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연구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역사문화 정책개발 및 컨설팅</li> <li>• 시·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li> <li>• 도내관계공공기관공동연구시스템 구축</li> </ul>        |

### ③ 한국호남진흥원

**슬로건** 민족문화의 균형 발전과 호남한국학 도약의 산실

**설립목적**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호남지역 한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수입·보존·연구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연수와 전시·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

- 주요사업**
1.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 홍보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 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7. 호남권 역사적 인물·사건에 대한 선양사업
  8. 그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Vision** 전통을 성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과 함께, 겨레의 평화와 번영을 꿈꾸는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선양

- Mission**
- 호남의 역사유산과 기록문화의 체계적 발굴 정리 보존 편찬
  - 호남권 한국학 연구 활성화와 차세대 전문가 양성
  - 호남인의 역사 문화역량을 고취하는 전시 교육 프로그램 확산

**주요성과** 고문서·전적 조사·수탁, 호남학 해제 및 국역서 발간 등



### ③ 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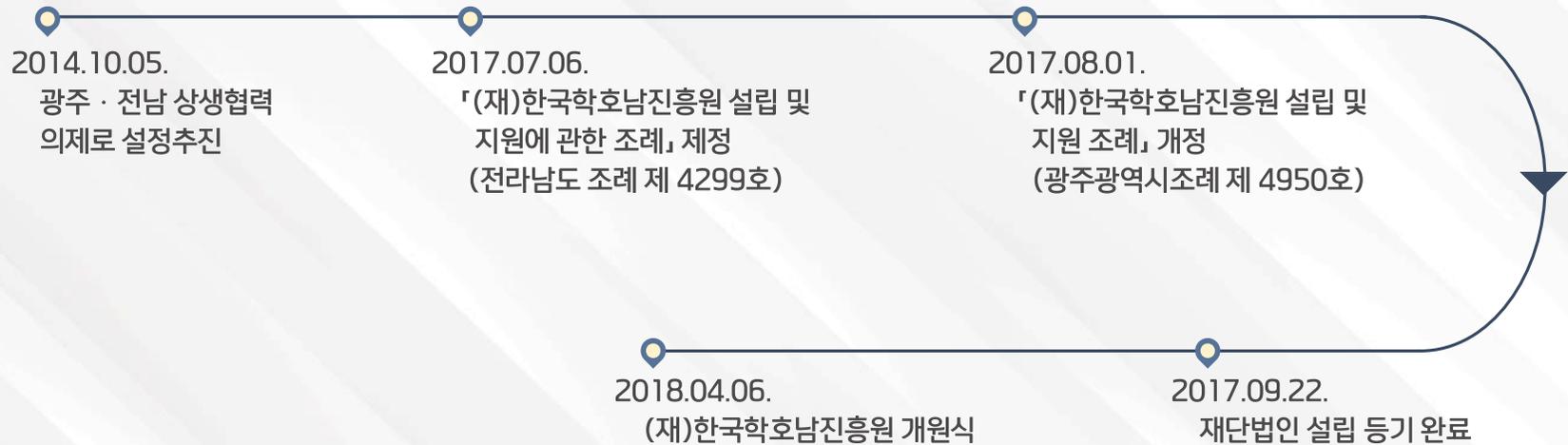
호남은 예로부터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의 물꼬를 바꿔내며 학술과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서세동점 세계화의 파고에 휩쓸리며 전통의 학술·생활세계는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고, 지난 위망危亡의 세월을 견뎌온 상부상조의 정신 및 문화 창조 역량 또한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 연구, 국역 보급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학술 역량과 가치전통의 복원과 재발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한국학, 내일의 문화 주체를 위한 청년한국학,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미래한국학의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호남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역사전통과 문화역량에 대한 성찰 없이 당당한 미래 설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여망 나아가 두 지방정부의 상생 협력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 ③ 한국학호남진흥원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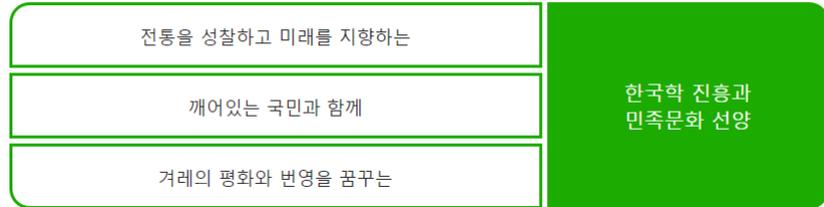
### ③ 한국학호남진흥원 - 주요사업

사업안내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자료집성</li> <li>고전문헌 국역편찬</li> <li>호남한국학종합DB 구축</li> <li>교육연구사업</li> <li>올해의 사업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행도서</li> <li>호남문고</li> <li>영상자료</li> <li>호남학산책</li> </ul>



### ③ 한국학호남진흥원 - 비전 및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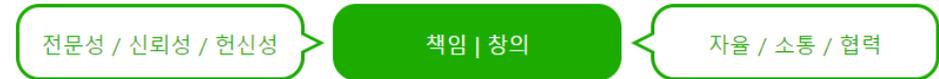
#### 비전



#### 미션

- 호남의 역사유산과 기록문화의 체계적 발굴 정리 보전 편찬
- 호남권 한국학 연구 활성화와 차세대 전문가 양성
- 호남인의 역사 문화역량을 고취하는 전시 교육 프로그램 확산

#### 미션 수행의 핵심가치



#### 미션 실현을 위한 기본 목표

- 국내외 손색없는 연구역량 구축
- 학술행정의 전법 확립
- 생활 청년 미래를 위한 한국학 사업 추진

## 국학진흥협의체 기관의 ‘진흥’

### Question 1.

국학진흥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무엇일까?

### Question 2.

진흥기관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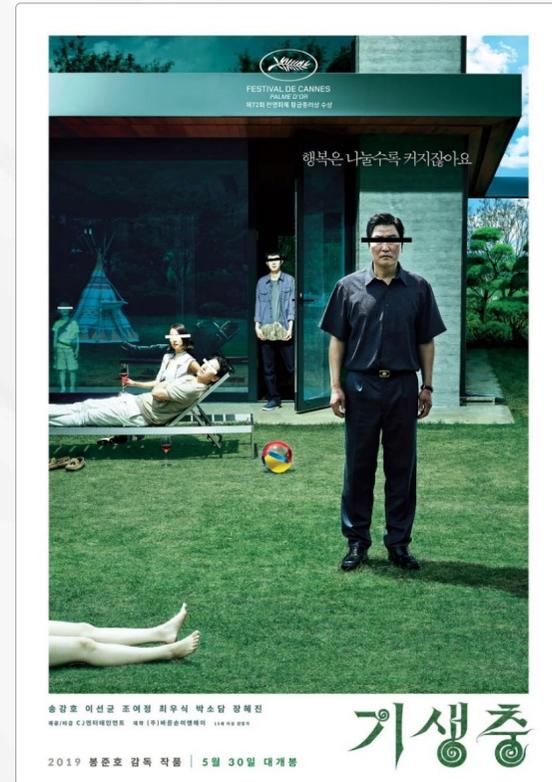
기록의 소중함 - [민간 기록문화]에서 또 다른 기회 창출

#### 04. 한류는 어떻게 성장했나?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 ① 정책적 지원 - 한류의 전성시대

- 2020년 9월 미국 빌보드의 싱글차트인 '핫 100'의 1위에 오른 'BTS(방탄소년단)'의 DYNAMITE
- 같은 해 2월 작품상 등 아카데미상을 4개나 거머쥔 영화 '기생충'



① 정책적 지원 - 한류의 전성시대

“한국최초”...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핫100’ 1위

-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위해서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시작  
→ 첫날 8조 6천억 원이 몰림



▲ 출처 : SBS 뉴스 [ 2020.10.06 ]

billboard	
HOT 100	
SONG	ARTIST
1 Dynamite	BTS
2 WAP	Cardi B ft. Megan Thee Stallion
3 Laugh Now Cry Later	Drake ft. Lil Durk
4 Rockstar	DaBaby ft. Roddy Ricch
5 Blinding Lights	The Weeknd
6 Whats Poppin	Jack Harlow ft. DaBaby, Tory Lanez & Lil Wayne
7 Watermelon Sugar	Harry Styles
8 Roses	SAINT JHN
9 Savage Love (Laxed - Siren Beat)	Jawsh 685 x Jason Derulo
10 Before You Go	Lewis Capaldi

chart dated Sept. 5, 2020

### ① 정책적 지원 - 한류란?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

- 초기 한류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드라마를 통해 나타남
- 1998년부터는 한국의 대중음악 즉, 아이돌그룹이 이끄는 K-POP 이 일본,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한류 시대가 열림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1991)>가 1997년 중국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더니 <대장금(2003)>이 큰 물결을 일으켰다.



<겨울연가(2002)>는 일본에서, <풀하우스(2004)>는 아시아에서 한류의 문을 활짝 열었다.

## ① 정책적 지원 –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정책

### 김대중 정부의 정책 의지

-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명백하게 선언



방송위원회 신설(2000. 2. 14)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199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1) 등  
각종 정책지원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재원 및 지원제도 등을 가시적으로 확충했다.**

### ① 정책적 지원 –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정책

문화관광부는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 세기에 문화가 맡아야 할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비전 2000〉**을 준비



#### 취지문의 일부

“다음 세기에는 문화의 힘과 창의성이 단순히 문화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과 정보,  
그리고 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화는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기반조성과 투자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 ① 정책적 지원 -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인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

- 2005년 7월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을 발표해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비전을 제시
- 정책목표로는 '국제수준의 문화산업시장 육성, 문화산업 유통구조의 혁신, 저작권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한류 세계화를 통한 브랜드 파워 강화' 등을 제시

대중음악과 방송드라마에서 촉발된 한류가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한류 확산 및 한류 지속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

## 04. 한류는 어떻게 성장했나?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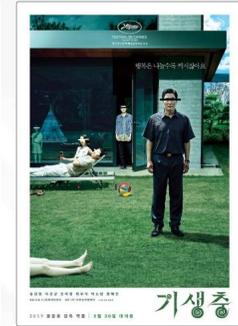
### ① 정책적 지원 - 한류의 현주소



- 2010년을 넘어서면서 '한류'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감
-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K-POP'의 선풍적인 인기로 지역적인 제약을 뛰어 넘고 있음
- 싸이의 <강남스타일>(2012)이 대표적



- 한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동북아시아, 중동, 유럽, 북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소비되고 있음
- <별에서 온 그대>(2013), 그리고 <태양의 후예>(2016)까지 이어지는 한류의 흐름은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



- 2020년 9월 미국 빌보드의 싱글차트인 '핫 100'의 1위에 오르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BTS(방탄소년단)' 현상
- 그리고 같은 해 2월 작품상 등 아카데미상을 4개나 거머쥔 영화 '기생충'은 우리의 문화 지형을 또 한 번 크게 바꿔 놓고 있음

1998년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불과 십 여년 만에 '한류'는 이렇게 탄생했다.

① 정책적 지원 - 역대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추이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문화산업에 대한 법령 정비, 정책적 지원체계 확립, 자원 확보



드라마와 K-POP 등 한류(韓流)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영화, 방송영상, 음악산업의 경우 아세아 최고 수준

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도약을 목표(현재 9위 수준)

#### 04. 한류는 어떻게 성장했나?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 ② 소재의 발굴



② 소재의 발굴 - 역사책 한 줄, 고전 한 줄에서

“ 고전과 역사에 주목,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이끌라 ”

- [2007 문화원형 콘퍼런스] 한·중·일 문화콘텐츠 대표주자 한 목소리 中 -



▲ 이병훈 PD가 강연하고 있는 모습(CT News 2007. 2.21.)

“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회 문화원형 콘퍼런스에 한중일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문화원형의 가치와 그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

## ② 소재의 발굴 - 역사책 한 줄, 고전 한 줄에서

**“해묵은 역사책 한 줄,  
고전 한 줄에서 명작 문화콘텐츠는 탄생한다.”**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7 문화원형 콘퍼런스(문화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최)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장금〉의 이병훈 PD, 2008 베이징올림픽 마스코트인 '푸와' 제작자 려우전위, 일본의 대표적 공포만화가인 히노 히데시. 이들 연사들은 각국의 문화원형을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내게 된 배경과 과정, 향후 전망에 대해 풍부한 사례를 담아 이야기했다.

**“될성부른 소재 찾기가 최우선”...이병훈 PD**

이병훈 PD는 〈대장금〉, 〈허준〉, 〈상도〉 등 대단한 인기를 끈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소재와 스토리의 관계 및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전체 드라마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소재 발굴"이라며 "이것을 위해 무수한 소설책을 읽어내는 등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빼어난 사극들은 바로 역사 속 한 줄 기록과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결과들. 하나의 작품을 얻기 위해 역사책은 물론, 각종 논문과 연구서들을 읽어내는 노력과 함께, 그것을 구현해내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이 PD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드라마를 즐겨 보고 드라마에 미친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며 "한 해에도 수없이 제작되는 많은 드라마들로 국내 드라마의 국제적 위상 또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 ② 소재의 발굴 - 대장금과 관련 기록

###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21일 무인 1번째기사 1515년

전교하였다. "대저 사람의 사생이 어찌 의약(醫藥)에 관계되겠는가? 그러나 대왕전에 약을 드려 실수한 자는 논핵하여 서리(書吏)에 속하게 함은 원래 전례가 있었다.

왕후에게도 또한 이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또 의녀(醫女)인 장금(長今)은 호산(護產)하여 공이 있었으니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내는 대고(大故)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 못하였다.

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형장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명하여 장형(杖刑)을 속바치게[贖杖] 하였으니, 이것은 그 양단(兩端)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 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2월 15일 을사 2번째기사 1524년

전교하였다. "백공(百工)의 기예(技藝)는 다 부족하여서는 안되고 권과 절목(勸課節目)이 상세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다만 각사(各司)의 관원이 힘을 다하여 권과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효(成效)가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술(醫術)은 더욱 큰일인데 각별히 권과하지 않으니, 지금 그 기술을 조금 아는 자는 다 성종조(成宗朝)에서 가르쳐 기른 자인데, 이제는 그 권과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醫司)에 물어서 아뢰라.

또 의녀(醫女)의 요식(料食) 879)에는 전체아(全遞兒) 880)가 있고 반체아(半遞兒)가 있는데, 요즈음 전체아에 빈 자리가 있어도 그것을 받을 자를 아뢰지 않으니, 아래에서 아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의녀 대장금(大長今)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으므로 바야흐로 대내(大內)에 출입하며 간병(看病)하니, 이 전체아를 대장금에게 주라."

## ②소재의 발굴 - 별에서 온 그대 관련 기록

### 광해군일기[중초본] 19권, 광해 1년 8월 25일 계유 2번째기사 1609년

〈사시(巳時)에 태백성이 〈미지(未地)에〉 나타났다. 오시(午時)에 영두성(營頭星)이 〈천중(天中)에서 나와 간방(良方)을 향하였다.〉 크기는 항아리만하였고 빠르게 지나갔는데 마치 햇불과 같고, 요란한 소리가 났으며

〈크기는 가히 3, 4자 정도이고 황백색이었다. 밤 5경에 유성이 벽성(壁星)의 자리에서 나와 건방(乾方)의 하늘 끝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발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가 6, 7척 정도였으며 적색이었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19권, 광해 1년 8월 25일 계유 3번째기사 1609년

선천군(宣川郡)에서 오시에 날이 맑게 개어 얇은 구름의 자취조차 없었는데, 동쪽 하늘 끝에서 갑자기 포를 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올려다보니, 하늘의 꼴단처럼 생긴 불덩어리가 하늘가로 떨어져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불덩어리가 지나간 곳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폭포와 같은 형상이었다.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 민간 기록문화와 스토리

한국국학진흥원

Story THEMEPARK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 생활

공지사항 | 활용사례 | 로그인 | 소개

테마스토리 | 인물스토리 | 배경이야기 | 멀티미디어 | 일기정보 | 웹진담담 | 창작 콘텐츠 공모전 | 컨퍼런스

선인들의 일기장에서  
최고의 스토리를 찾아라!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일처럼 흥미진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기에서 찾아낸 흥미로운 스토리들로 가득한  
스토리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웹진담담  
신설하기

활용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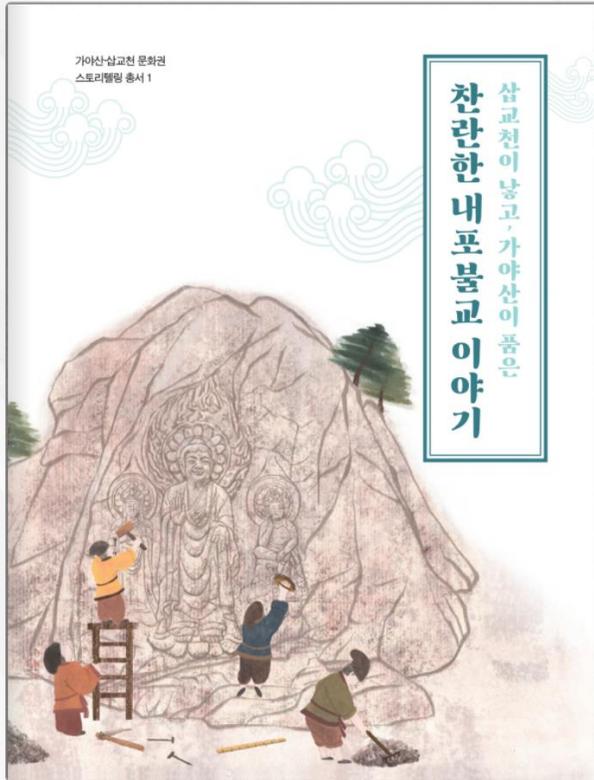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TOP

〈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

## 민간 기록문화와 스토리



### 〈 호남학산책 〉

이전 글 보러가기 ▶

선비, 길을 열다

2019년 9월 10일

열번째 이야기

### 고운(孤雲)과 고운(顧雲), 그의웅은 구름처럼

20대 한창 시절을 군막에서 많은 문서를 감당하는 종사관을 지낸 최치원, 천하에 문명을 알리며 5종 이상의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고, 백관을 규찰 탄핵하는 시어사(侍御史) 내공봉(內供奉)이 되었다. '졸신 입사하고 이삼십 년이 지나도 쉽게 될 수 없는' 벼슬이었다.<sup>1)</sup> 비록 조정에 나가 실제 직책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sup>2)</sup> 이때 거대한 제국의 황혼을 목격하였다. 황소의 기세에 편승하였다가 돌연 재물과 벼슬을 흥정하는 배반의 군상, 환관에 휘둘리며 항락에 휩싸인 무능한 황제! 더구나 절도사 고병은 회남에 활거하여 조정과 불화하고, 심지어 황제를 '망국의 군주'로까지 비방하였다. 어찌하나? 최치원은 '존엄한 분부를 따르지 않고 바른말(讜言)을 진달'하다가, 호소하였다.<sup>3)</sup>

"비읍건대 저의 직책이 걸맞지 않다는 비방을 벗겨주소서. 제가 안정을 되찾도록 물러남을 특별히 허락해주시기를 엿드려 바라옵니다. 혹여 내치지 않고 이대로 머물게 하시려면, 쓸데없는 자리(冗員)에 채워 주시거나 직책 없이 그냥 약간 곡식이나마 내려주소서."

절도사는 돈과 곡식을 더해주고 옷감도 내려주었다. 달빛 아래 계수나무 동산에서 한가하였을까? 그간 군막에서 '필

# 민간 기록문화란?

## 정의

1945년 이전에 생산되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 목판·현판 등 기록물(한글 및 한자 포함)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

지역의 민간 기록 문화는  
각각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문화의 다양성을 이루며  
창의력의 바탕이 된다.

다양한 고유 문화의 크기가  
문화산업의 경쟁력 지표가 된다.



**[민간 기록문화]**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 정책의 모색

### 대상

훼손·멸실·도난의 우려가 있는  
민간소장 국학 자료(사찬私撰 자료)

### 과정

수집→보존→연구(국역 포함) 및 교육·연수  
→ 활용(출판·전시·체험)  
→ 응용(융합 콘텐츠 창작,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등)

### 목표

# 한국학 진흥

**[3대 전통문화유산] 중 기록문화유산이 약 50%,**

**나머지 무형문화유산과 비기록유형문화유산이 약 50%를 차지한다.**

### ①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 정책의 모색

#### 훼손·멸실·도난의 우려

민간이 보유한 기록문화가 훼손, 멸실 되거나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민간 기록문화의 번역·연구를 통해  
국민이 민간 기록문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수집과 정리에는 전문성이, 보급과 활용에는 대중성(대중이 공급하고/ 대중이 소비하는 콘텐츠)이 요구

따라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하는 진흥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의 지향점 - 대중화에 방점을

“무엇보다 나는 지방사 연구와 지형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취미 활동**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들은 전문적인 역사가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학문에 겁먹게 해 그들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학문은 즐거움의 수단이며 자신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식을 확대시키는 방편이고, 심지어는 내부 세계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윌리엄 조지 호스킨스 (William George Hoskins)

지난 10-15년 동안 박물관은 전략과 관습을 바뀌었다.

**피터 웰시(Peter Welsh)**는 박물관이 '문화 저장고'나 '교육적' 혹은 '기념적'인 장소에서 '문화관리소', '학습센터', '공동의' 시설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민 참여 :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역할에 초점

### ③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의 성공 조건

1. 전문인력양성
2.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조성
3. 정보체계 구축(DB 및 정보서비스)
4. 기반시설 확충
5. 안정적 예산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6.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즉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 법과 제도의 제정에서 고려할 사항 : 지역의 균형발전 )

## ④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의 성과 - K-CULTURE

### 성과

# 가치의 재구성 = K-CULTURE

- 기록문화의 재발견(유교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 K-CULTURE의 위상 강화를 통한 국격 제고
- 유교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의 가치 재생산- 미래를 위한 지적 자산
- 미래지향적 (미래사회를 위한 인문적 가치체계) 재창조
- 후속 세대의 양성

## ④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의 성과 - K-CULTURE의 토대 구축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은

K-POP, 기생충 등의 성공, 또 '코로나 19' 사태 때 'K-방역'과 같은 맥락에서  
K-CULTURE의 성공을 이끌어 국격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뿌리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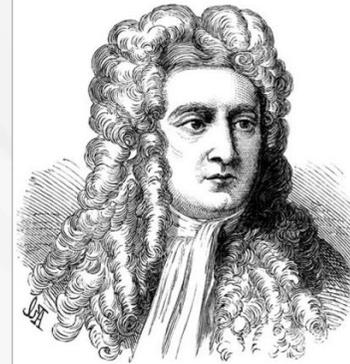
난장이가 올라설 수 있는 거인 즉, 창의성의 기반을 쌓는 것이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의 궁극적 목표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내가 더 멀리 본 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있었기 때문이다.

- 아이작 뉴턴 Isaac Newton -



VIVALDI  
1655-1741

## 이는 K-CULTURE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민간 기록문화 보존과 활용방안

감사합니다.

Q&A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재단  
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울곡연구원 원장 박원재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PRESENTATION CONTENTS

---

1.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왜 필요한가
  2.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 기록문화유산의 열악한 보존 실태 개선

-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은 소유권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이나, '민간 소장'의 특성상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도 어려움 있음
- 그 결과, 또 다른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과 '유교책판'이 무지와 무관심 속에 지금도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 상존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풍부한

## 민간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수집·보존 대책 수립 시급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의  
열악한 보존 실태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의  
열악한 보존 실태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전문기관에 의해 수집보존된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



##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전문기관에 의해 수집보존된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② 연구

### 지역 '전통'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기반 구축

- 대부분의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은 생산 시기가 '조선'이라는 점에서 지역-학파 연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경기-기호유학/근기실학, 영남-퇴계학/남명학, 호남-호남유학, 충청-울곡학/기호유학, 강원-울곡학

- 이점에서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천 자료 역할을 함

-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이 최대한 그것이 생산된 지역에 원형대로 보존, 연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이 '중앙'이 아니라

**지역 연고성이 있는 해당 지역에서 보존, 연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시급**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② 연구

③ 활용

### 지역 '전통'에 토대를 둔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문화분권 활성화

- 문화의 '생산(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소재'와 '창의력'인바, 이 가운데 해당 문화에 독창성과 차별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일차적으로 '창의력'이 아니라 '소재' 영역
- 기록문화유산은 콘텐츠 개발의 중심 소재인 스토리텔링 소스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하는 일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 활성화에 기여

이것이 문화의 '생산(창조)-분배(유통)-소비(향유)' 구조에서 탈중앙화에 입각한 '문화다양성'과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자율성'을 구현하는 길

'지방분권=문화분권'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유전자(cultural gene)를 담고 있는

## '지역기록유산(Memory of the Local)'의 활용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② 연구

③ 활용

## 기록문화유산을 가공·활용한 스토리텔링 소스 개발·보급 사례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 ▶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the Story Theme Park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header includes navigation links: 소개마당, 사업안내, 정보마당, 국학문고, 유네스코기록유산, 홍보마당, 고객마당, 디지털콘텐츠, and ENG.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정보마당' (Information) section with a '문화콘텐츠' (Cultural Content) menu listing various topics like 전통과 기록, 목판아카이브, and 디지털 하회마을. The main article is titled '스토리 테마파크, 일상적 삶에서 만나는 조선의 이야기' (Story Theme Park, Stories of Joseon Encountered in Daily Life) and includes a '바로가기' (Go) button and a list of '테마스토리' (Theme Stories) such as '조선시대의 일기자료에서 추출된 이야기소재를 10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구성'.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1. 왜 필요한가

① 보존

② 연구

③ 활용

기록문화유산을 가공·활용한  
스토리텔링 소스 개발·보급 사례

기록문화유산 기반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2018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

**상상력의  
단함과 열림,  
한국형 판타지를 말한다.**

**Session 1**  
한국형 판타지를 말한다  
: 한국형 판타지를 찾아서 - 진산  
: 한국 괴물 이야기의 종류와 특징 - 곡재식

**Session 2**  
선인의 상상세계, 판타지로 그리다  
: 선녀와 나무꾼의 변주, 21세기 선녀 - 돌배  
: '바리공주'가 전하는 위로와 희망 - 김나영

극림중앙박물관  
대강당  
2018. 10. 6 (토)  
11:30 - 17:30  
본행사 13:00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2.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① ‘기탁’ 제도를 운용한  
사업추진방식 지원 명시

- 종가와 문중, 서원, 향교, 사원(절) 등이 주 소장처인 민간 기록문화유산은 해당 소장처의 전통과 관련된 역사인물의 숨결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소유권 자체를 이관받는 ‘기증’ 방식을 통하여 수집·보존에 나설 경우, 소장자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음
- ‘매수’를 통한 방식도 ‘조상의 유품을 팔아먹는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부정적일 뿐더러, 소요되는 자원 조달도 실효적이지 못함

이를 감안할 때 소장자의 소유권은 보장하고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연구·활용 권한만 위임 받는

**‘기탁’이 소장자와 관리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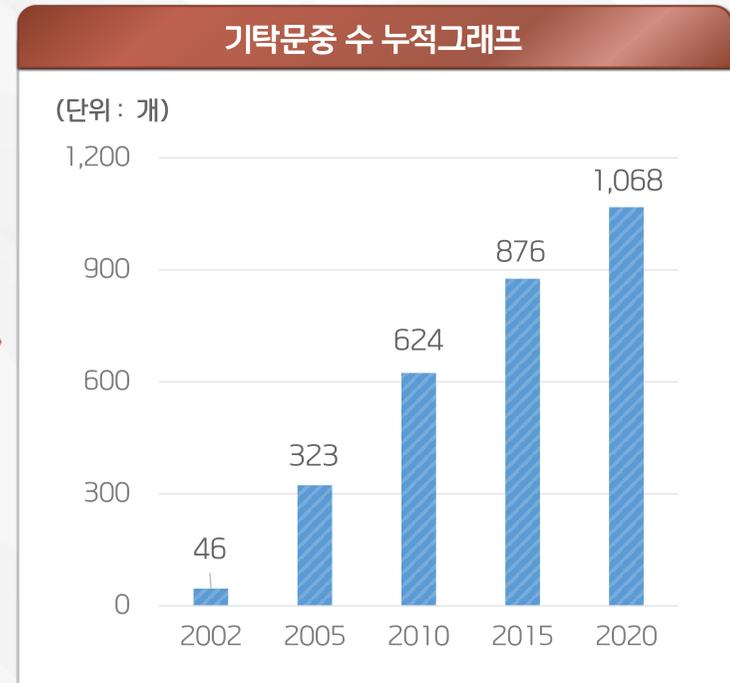
이 제도는 그 효과도 입증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 명시 필요

##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02.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 '기탁' 제도를 처음 도입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수집·보존 성과

연도	형태 및 분류						계	기탁문종수 (추가기탁미포함)
	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기타		
2002	6,402	8,231	10,840	31	0	56	25,560	46
2003	25,539	37,832	18,282	124	252	202	82,231	88
2004	16,901	17,722	9,359	56	27	302	44,367	85
2005	9,894	20,202	8,870	75	339	225	39,605	104
2006	5,403	8,374	4,234	67	260	247	18,585	71
2007	10,485	14,709	3,730	43	383	148	29,498	75
2008	8,341	15,104	1,465	84	310	126	25,430	49
2009	6,893	4,355	1,552	89	145	102	13,136	63
2010	5,554	17,521	2,596	182	402	204	26,459	43
2011	7,158	22,576	1,748	107	526	220	32,335	58
2012	8,447	16,324	1,203	76	626	615	27,291	64
2013	9,154	18,273	461	41	180	96	28,205	46
2014	8,720	12,661	643	52	190	103	22,369	46
2015	6,702	14,780	518	29	222	144	22,395	38
2016	6,840	12,408	713	32	288	284	20,565	38
2017	8,428	17,415	225	115	247	353	26,783	55
2018	9,029	22,032	0	32	265	118	31,476	44
2019	5,841	19,866	60	29	137	72	26,005	41
2020	860	12,232	1	15	306	79	13,493	14
합계	166,591	312,617	66,500	1,279	5,105	3,696	555,788	1,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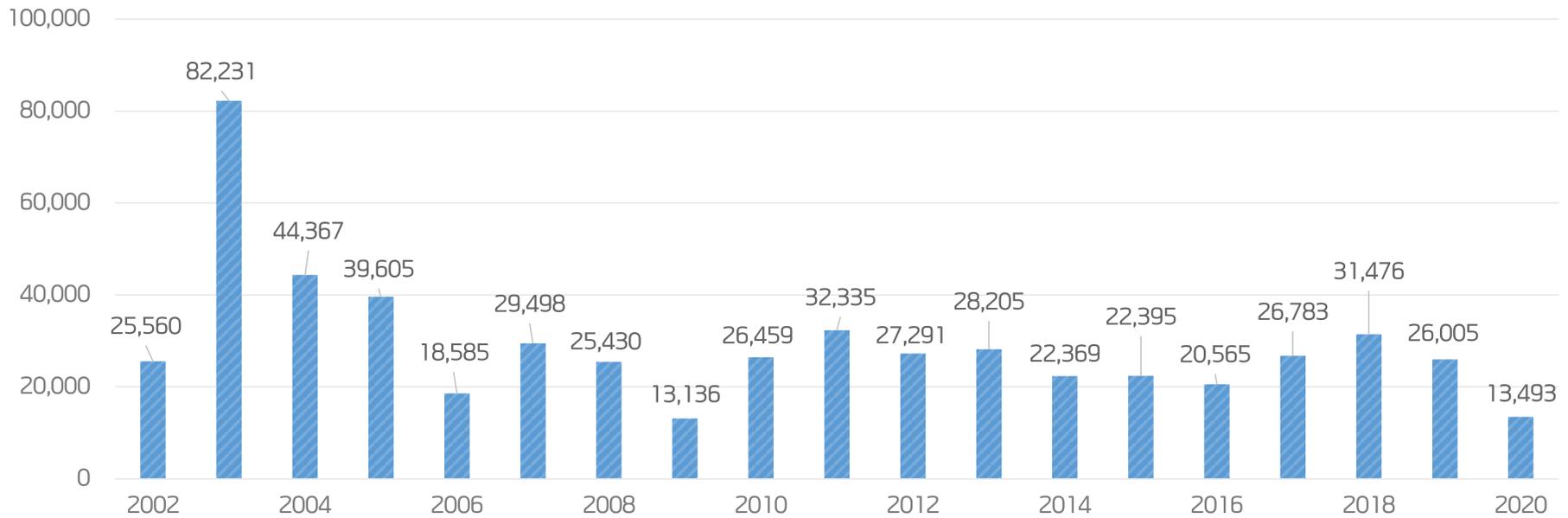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2.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연도별 기탁추이

연도별 국학자료 기탁현황

(단위: 개)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2.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② 연구·활용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항 명시**



-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는 그것의 형태적 측면보다 거기에 담겨 있는 기록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탈초, 번역, 해제 등의 연구와 이를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임
- 만약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수집·보존을 지원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면, 이는 권역별로 수장고를 하나씩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실질적인 의미가 반감됨

자료의 2차적인 가공에 해당하는 이런 작업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길 필요 있음

## 02.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민간 기록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에 달려 있으므로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책무 명시화 필요

- 소요 재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관 운영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터인데, 중앙정부가 출자·출연하지 않은 기관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운영비-지방정부/ 사업비-중앙정부'로 지원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적절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2.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④ 권역별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방식 도입



- 지역의 민간 기록문화유산은 해당 지역에서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기초지자체 단계로까지 내려가는 것은 전문인력 운용 및 시설 구축 면에서 제약이 따름

이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민간 기록문화유산의 지역적 연고를 주목하여

광역 문화권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

- 이를 토대로 2차적으로 광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권역별 전담기관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기관·단체들을 네트워킹하면 전국과 권역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02.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민간 기록문화유산 수집·보존을 주 사업으로 하는 권역별 기관 현황  
(문체부 지원 '국학진흥기반조성사업' 참여 기관)

**한국국학진흥원**



**소재지** | 경북 안동

**설립·운영** | 경상북도 -안동시

**설립연도** | 1995년

**권역** | 영남권

**학문연고** | 경북안동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설립·운영**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설립연도** | 2017년

**권역** | 호남권

**학문연고** | 호남유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재지** | 충남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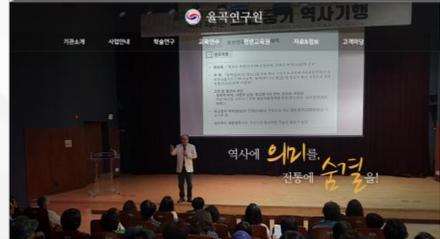
**설립·운영** | 충청남도

**설립연도** | 2004년

**권역** | 충청권

**학문연고** | 기호유학

**울곡연구원**



**소재지** | 강원 강릉

**설립·운영** | 사단법인(재단법인 추진중)

**설립연도** |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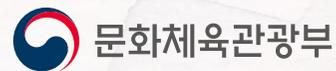
**권역** | 강원권

**학문연고** | 울곡학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감사합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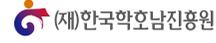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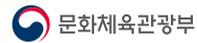


2020 국학진흥협의체 공동사업  
「민간 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발 행 일 2020년 11월 2일

발 행 처 국학진흥협의체



주관기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062-603-9625

Fax. 062-941-6705

<https://www.hiks.or.kr>

---

※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20 호남한국학 진흥지원 사업 (국학진흥협의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